

이웃종교 RELIGION

“故 김 추기경 조문에 감사”

정진석 추기경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정진석 추기경(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은 3월 13일 종교지도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제 13대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은 3월 13일 종교지도자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정 추기경은 “故 김수환 추기경 선종과 장례기간동안 각 종교에서 보내주시는 조문과 애도에 감사하고, 이렇게라도 인사를 드리고 싶어 자리를 마련했다”고 인사를 전했다.

주교(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교회 일치와종교 간대화위원회 위원장), 임신형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이성택 원불교 교정원장, 최근덕 성균관장, 김동환 천도교 교령,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안병철 신부(서울대교구 사무처장), 허영엽 신부(서울대교구 대변인·문화홍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은 기사가 나온 기사

2009 평화포럼

한국종교연 매월개최

한국종교연(상임대표 박남수)은 문화관광부의 후원아래, ‘종교와 평화’를 주제로, ‘2009 평화포럼’을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씩 연 8회에 걸쳐 진행한다.

평화포럼의 첫 번째 강사는 3월 26일 ‘종교간 화해와 국민통합(정상우,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포럼은 국내 각 종교의 평화관을 이해하며, 종교간 갈등 해소와 시민사회 통합, 평화세계 구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종교연합은 2월 19일 제5기 신인 상임대표로 박남수 전 공동대표를 선임했다. 박남수 대표는 한국종교연합 창립 당시부터 활동해 왔다.

이날은 기사가

“무소유로 돌아가 시설 재단에 맡긴 것”

서용사 총지 스님 부동산 기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자비나눔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 비구니스님이 시가 15억 상당 토지와 건물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관)에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다.

안성 서용사 주지 총지 스님은 3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부동산을 전달했다. 스님의 기부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설립된 이래 단일규모로는 가장 크다.

지관 스님은 전달식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자비나눔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종교는 불교사회복지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종교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재를 보존하면서 지역과 사회를 위한 복지 불사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달식에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직지사 주지 성용,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우, 호법부장 정만, 문화부장 수경, 사회복지부장 세영 스님, 김홍택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기부된 부동산은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의 대지 419㎡에 건물 887.64㎡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영유아보육시설 룸비니동산어린이집과 주거시설로 쓰이고 있다. 신도들의 시주금과 스님의 사비를 들여 설립한 자체시설인 어린이집은 2008년 9월에 문을 열었으며 현재 30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총지 스님은 부천 소림사주지 지혜의 총무 소임을 겸임하면서 부설 유치원 운영과 결혼가정 아동의 양육 등을 통해 어린이 포교에 앞장서 왔다.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에 신도들로 조직된 자원봉사자를 파견하거나 후원을 통해 활발한 사회복지 활동을 전개해왔다.

총지 스님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도 의미가 있지만 중장기적인 정책과 계획으로 불교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될 때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복지사업을



총지 스님(서용사 주지)은 3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15억 상당의 부동산을 전달했다.

통한 포교 효과가 배가된다고 생각해 기증하게 됐다”며 “포교와 수행의 일환이기에 당연한 일이며 무소유 사상으로 돌아가 시설운영을 재단에 맡기는 것일 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스님들 중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도 더러 있는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맡겨서 활용하면 서로 상호협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은 기부된 재산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 법인의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예정이다. 기부자측의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용사를 운영 지원시설로 지정해 룸비니동산어린이집을 계속해서 운영하게 할 계획이다.

현재 어린이 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1층 외에 2층과 3층은 지역아동센터와 결혼가정 아동쉼터 등을 운영해 복지사업의 영역을 확장해나갈 방침이다.

이날은 기사가 bohyung@buddhapia.com

폴리패스터의 한계... 추 목사의 몰락

박연차 회장에게 2억 수수 혐의로 체포



MB정부 구성에 큰 역할을 하며 청와대 홍보비서관도 역임한 대표적 폴리패스터

MB정부가 정치를 통해 정치계에 뛰어든 추 목사는 2007대선 당시 ‘대운하추진본부 부본부장’을 지내며 ‘대운하 전도사’로 불렸다. 이어 비서실 정책기획팀장,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내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하지만 추 목사의 정치인생은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촛불집회 참가자를 ‘사탄의 무리’라고 한 발언으로 정치권과 여론의 뭇매를 맞아 4개월여 만에 좌절됐다.

이밖에도 추 목사의 경솔한 언행은 이어졌다. 같은 해 10월 14~18일 일본으로부터 북관대첩비 환수를 기념하는 한일불교복지협회 산하 ‘북관대첩비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자격으로 조선불교도연맹 관계자를 만난 후 기독교계 언론인 노컷뉴스에 ‘북관이 남측 비공식적 창구를 요청했다’ ‘북측에 뇌졸중과 관련된 약품 제공의사를 밝히자 ‘조속히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등의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이에 조물련 측은 조계종과 북관대첩비기념사업회에 ‘사실무근’이라며 직접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불교계는 문화재 반환 공조로 명백을 유지하던 남북

교류와 불교교류에 찬물을 끼얹은 추 목사의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추 목사의 이러한 언행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폴리페스터(정치교수), 폴리페스터(정치목사), 폴리테이너(정치연예인) 등 순수성을 상실한 각계의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종교인의 정치참여에 대해 개신교 내부에서도 “정치하고 싶으면 본업인 목사를 반납하고 나서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2009년 2월 16일 자신이 발행인 겸 편집인인 아우어뉴스 창간식에서 “대한민국 앞에 어떠한 이념, 사상도 없다”며 애써 종교인으로서의 정치참여를 정당화하며 재기의사를 밝혔던 추 목사. 당시 “내가 어찌 목회를 떠날 수 있겠는가”라며 목회지도도 굽히지 않은 그의 구수를 볼 때 폴리페스터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게 된다.

노덕환 기자

남양주희망케어센터 위탁

남양주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맡겨

경기도 남양주시(시장 이석우)가 3월 18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관)에 ‘남양주희망케어센터’ 사업 운영을 위탁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외계층을 위해 보건과 복지를 연계해 선진 복지확진사업을 전개해 온 남양주시는 2007년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는 최초로 원스톱(One-Stop) 체제를 구축한 운영해왔다. 센터는 노인, 장애인, 소년 소년가정, 차상위계층 등 각종 보호대상자들에게 산발적으로 주어지던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하나로 통합연계해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특히 희망케어센터는 서비스의 중박과 노력을 방위하고,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극대화 하는 점에서 전국 72개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했으며 새 정부에서는 희망케어센터 복지모델을 대통령 공약사항인 희망복지 129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의 표준모델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날은 기사가

사회서비스센터로 장애인복지 ‘활짝’

강북장애인복지관



3월 24일 열린 강북장애인복지관 사회서비스센터 헌관식.

서울 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진화, 이하 복지관)이 사회서비스센터를 설립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강북장애인복지관은 3월 24일부터 강북구 수유 2동(구 수유2동) 사무소 3층에 센터를 열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중인 바우처 지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과 ‘장애인활동보조인지원사업’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랑구 마사회, 중랑노인요양원에 후원금

서울 중랑구 마사회는 3월 25일 민간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원장 고정숙)에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진화 스님은 “서비스센터를 개소함에 따라 본동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의 공간·지역적 한계를 넘어 수유동지역까지 사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02) 989-4215

마사회가 전달한 후원금은 요양원 어르신들의 안전 케어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물리치료, 간호장비 구입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02) 437-0144

이날은 기사가

Advertisement for 'Jorim-sik Palgagdeung' (조림식 팔각등) featuring a traditional lantern and text describing its features, price, and availability.

Advertisement for 'Bing's Tuma' (빙의 퇴마) featuring a portrait of a man and text describing its benefits for various ailments and contact information.